행정정사 낙성식 및 의성 사촌 행정가의 선비정신 논문발표

부정공파 행정(杏亭) 종중 행정정사(杏亭精舍) 낙성식 및 의성 사촌 행정가(杏亭家)의 선비정신 논문발표가 10월 27일 10시에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21에 위치한 행정정사에서 권병건 아시아경제 대구경북 본부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행정정사는 안동권시 부정공파 사촌 입향조 행정(杏亭) 권식(權軾, 1423~1485)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자 유허지에 건립한 시설이다.

이날 낙성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대표 인사, 감사패 전달, 축사, 논문 발표, 기념촬영,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내빈으로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민재 대구지방 가정법원 의성지원 지원장, 최유철 의성군수, 김창수 점곡면장, 정병호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조순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재섭 새의성농협조합장, 김억 의성독립기념관 관장, 박종우 지산 조호익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윤 사촌 만취당 종손,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 지부 부회장,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총장,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권정창 전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병윤 전 부정공파 회장, 권효준 부정공파 회장, 향토사학자 김정중 박사, 권태영 영해 경모회 회장, 권인환 영해 오봉 문중 종손, 권오중 영해 오봉 문중 회장, 권오덕 안동권씨 의성종친회 회장, 권순용 대구 돈목회 회장, 권장수 행정 종중 대표를 비롯한 권영호, 권승호, 권오진 행정 종중 후손 등 100여 명의 내외 귀빈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행정정사 건립 경과보고를 했다. 지역유림과 후손들이 뜻을 모아 유허지를 정비하던 중 안동의 청개(靑皆) 권오진(權五辰) 후손이 2억원을 쾌척하여 행정정사를 신축했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행정종중에서는 종중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명문가의 품격을 보여준 권오진 후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축사에서 행정정사를 건립하는데 숨은 공이 너무 많다. 추진위원장과 총무가 수고를 많이 하셨다. 특히 100여 명이 넘는 후손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사에는 행정 선생의 절의정신과 학덕이 깃들어 있다. 이 유적을 보존하고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많은 노력을 통해 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켰다. 선조들 정신이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만취당 종손은 저는 안동권씨와는 특별한 혈연관계이다. DNA를 나눈 가문이라서 축사의 자리에 나서게 되었다. 안동김씨 사촌 입향조는 저의 20대조이다. 1392년 터전을 잡으셨다. 2남 4녀가 있었는데 행정 선생은 넷째 사위였다. 행정 선생이 처갓집 고향으로 입향할 때 사촌에 터전을 잡고 처음 정착한 자리가 지금의 건물 자리다. 그 자리에 자손들이 성력으로 위업을 이룬 것이다. 두 집안이 520여 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통혼하고 학문을 교유하고 살았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병으로 활동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유허지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숭조돈목 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하는 일이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교육현장에서조차도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행정정사 건립은 윤리도덕을 바로 잡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자식간에 도리를 다하고, 형제자매간에 도리를 다하고, 이웃끼리 화목하면 윤리 도덕은 바로 잡을 수 있다. 행정정사는 이웃에 귀감이 되는 장소, 숭조돈목을 실천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중 영해 오봉 문중 회장은 오봉 선조는 단종 때 사화 피해 영해에 입행했다. 행정 종중과는 깊은 인연이 있다. 앞으로 더욱 화목하고 끈끈한 자리됐으면 한다. 행정정사 건립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 지부 부회장는 이재업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행정정사 건립 기금으로 2억원 쾌척한 청개 권오진(사진 왼쪽) 후손에게 감사패 전달





행정정사 글씨는 정종섭 국학진흥원장(전 행자부장관)이 썼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권병건 사회자가 두 의원의 축전을 대독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축사에서 행정정사를 건립함으로써 점곡이 빛나고, 의성이 빛나고, 부정공파가 빛나고, 학덕과 충절의 정신, 올곧은 삶의 가치로 새롭게 출발하여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긍심이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병호 교수가 "의성 사촌 행정가의 선비정신"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병호 교수는 사촌은 안동권씨, 안동김씨, 풍산류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행정 선생은 단종의 영월 유배소식을 접하고 처향인 사촌에 행정을 세우고 은거했다. 32세 때 유일로 천거되어 창원교수에 제수었다. 33세 때 단종의 선위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관직을 버렸으며, 34세 때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통곡하였다. 이에 더욱 세사(世事)에 뜻을 두지 않고 사촌에 행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35세 때 세조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시직(侍直)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절의를 지켰다. 이때 동생 권저(權　)가 참봉으로 부임하자 "출처와 행장에 때때로 다름이 있으니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니 동생도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던 날 10월 24일이 되면 북향하여 울부짖었다. 두문불출하고 세상과 사절하고 의성 점곡의 숲을 은거처로 삼아 은행 세 그루를 직접 심고 행정(杏亭)이라 편액하고 호로 삼았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시문은 불타고 행단(杏壇)이란 시 한 수만 전해지고 있다.

杏壇絃誦未曾從 행단현송미증종
행단에서의 현송 아직 따르지 못하여
採得遺根手自封 채득유근수자봉
남은 뿌리 캐어 손수 스스로 심었네
寄語雲仍須勿剪 기어운잉수물전
자손들에게 전하노니 자르지 말지어다
佇看他日習儀容 저간타일습의용
후일 시서예악 익히는 모습 지켜보리라

여기서 행단(杏壇)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시서예악을 강론하던 장소이다. 현송(絃誦)은 가르침이다. 따라서 행단에서의 현송은 공자의 가르침을 뜻한다. 공자의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은행나무의 남은 뿌리를 자르지 않고 손수 심은 것이다. 행단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익히는 후손들의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시에는 선비의 풍모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행정의 현손인 권희순(權希舜, 1548~1598)은 사촌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때 의성 수성장으로 전공을 세웠다. 5대손인 권수경(權守經, 1584~1659)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의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8대손 권두정(權斗正, 1678~1731)은 무신난(戊申亂) 때 정제장(整齊將)으로 활약하였다. 행정의 절의정신을 후손들이 이어간 것이다. 이 절의와 충의 정신의 기저에는 선비정신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가의 인물들은 학문에 정진하면서 절의와 충절을 실천한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비라 할 수 있다. 의성 사촌 행정가의 선비정신이 계속 이어져 명사(明沙)처럼 세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해 본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문과 인연의 땅 ① 의빈 권씨, 영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

의빈 권씨의 발원에서 정혜옹주와 수종사까지 왕실과 불교문화에 남은 권문의 인연

한류문화원 **권오철**(부정공파 35世)

국보 아미타불 앞에서 시작된 권문 순례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흑석사(黑石寺).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한 이 사찰에는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 신앙과 목조 조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국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1458년, 세조 4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불상은 단순한 종교 조각이 아니다. 왕실 구성원들의 신앙과 발원, 그리고 수백 년에 걸친 보존의 역사가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불상의 조성 내력을 살펴보다 보면 유독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다. 바로 의빈 권씨(懿嬪權氏)다.

효령대군과 명빈 김씨, 의빈 권씨, 세종의 딸 정의공주와 그 남편 연창위 안맹담 등이 불상 조성의 발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왕실의 여러 인물이 한마음으로 불사를 후원했다는 사실은 조선 전기 왕실의 종교문화와 가족적 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그 가운데 권씨 성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안동권씨의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번 '권문과 인연의 땅' 순례는 바로 이 이름에서 출발한다. 국보를 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씨 인물이 왕실과 맺은 관계를 살피고, 그 인연이 남긴 사찰과 유적을 찾아 역사적 흔적을 확인하려는 여정이다.

성씨 하나가 역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씨는 잊힌 인물과 사건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흑석사 아미타불에 남은 권씨의 흔적은 그렇게 문중의 역사와 한국사의 접점을 찾아 나서는 길을 열어 준다.

의빈 권씨, 안동권씨와 조선 왕실을 잇다

의빈 권씨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왕실 불사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를 통해 안동권씨와 태종의 왕실, 그리고 왕녀의 혼인과 추모 문화까지 연결되는 인물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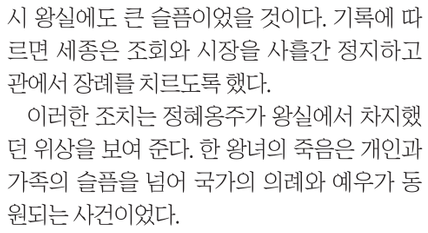
전해지는 계보에 따르면 의빈 권씨는 안동권씨 권홍(權弘)의 딸이다. 권홍은 조선 초기 관료로 활동했으며, 그의 딸이 태종의 후궁이 되면서 권씨 가문은 왕실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정혜옹주(貞惠翁主)다. 정혜옹주는 태종의 왕녀이자 안동권씨 권홍의 외손녀라는 점에서 권문 순례의 중요한 인물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인물의 생애가 여러 역사적 영역을 가로지른다는 사실이다. 의빈 권씨의 삶은 안동권씨의 가계와 연결되고, 왕실의 혼인 관계로 이어지며, 흑석사 아미타불의 조성 발원이라는 불교문화의 현장에도 흔적을 남긴다.

왕실의 불사는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왕실 가족의 안녕과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국가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염원하는 종교적 실천이기도 했다. 따라서 발원자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기록을 넘어 당시 왕실 구성원들의 신앙과 문화적 활동을 살펴보는 자료가 된다.

물론 의빈 권씨의 구체적인 생애와 가계, 불상 조성에 참여한 경위는 관련 문헌과 발원문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권홍에서 의빈 권씨로, 다시 정혜옹주로 이어지는 관계는 왕실과 안동권씨의 인연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보 제282호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경북 영풍군 이사면 석포리에 있는 흑석사의빈 권씨가 효령대군, 명빈 김씨 등 왕실과 종친의 시주를 받아 불상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인근의 마애삼존불 보물608호. 사진 권오철

정혜옹주와 부마 박종우, 혼인으로 이어진 역사

의빈 권씨를 이해하려면 그의 딸 정혜옹주의 삶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정혜옹주는 태종의 왕녀로, 1419년 박신(朴信)의 아들 박종우(朴從愚)와 혼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우는 훗날 운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왕실의 혼인은 두 개인의 결합을 넘어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고, 정치적·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혜옹주의 삶은 길지 않았다. 1424년 남편 박종우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이 세상을 떠났다. 왕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왕실에도 큰 슬픔이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조회와 시장을 사흘간 정지하고 관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혜옹주가 왕실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보여 준다. 한 왕녀의 죽음은 개인과 가족의 슬픔을 넘어 국가의 의례와 예우가 동원되는 사건이었다.

정혜옹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후 15년이 지난 1439년, 남양주 수종사에는 옹주를 추모하는 사리탑이 세워졌다. 탑에 새겨진 명문은 왕실 인물에 대한 추모와 당시의 불교 신앙, 그리고 시주자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권씨 문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리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빈 권씨의 딸이었던 정혜옹주가 왕실의 추모 문화 속에 기억되고,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흑석사 아미타불이 왕실의 신앙과 발원을 보여 준다면, 수종사 정혜옹주 사리탑은 왕실의 애도와 추모를 보여 준다. 두 유적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 전기 왕실의 불교문화가 신앙과 장례, 기억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미타불은 어떻게 흑석사에 왔는가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의 역사는 조성 당시의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불상이 어디에 봉안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사찰에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불상은 처음에 정암산 법천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흑석사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시기는 추가적인 문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호에 계속)

추밀공파 정헌공, 밀직공, 부윤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정헌공 종중(회장 권정택)은 정헌공(正獻公), 밀직공(密直公), 부윤공(府尹公) 추향제를 10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하포리 묘소 일원에서 전국 각지의 후손 200여 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정헌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용학(오헌공 종중 회장), 아헌관 권오돈(추밀공파 회장), 종헌관 권영한으로 분방하였다. 밀직공 헌관으로는 초헌관 권명복, 아헌관 권영빈, 종헌관 권성옥으로 분정하였다. 부윤공 제향에는 초헌관 권영로, 아헌관 권영익, 종헌관 권재균으로 분정하였다. 오헌공 종중에서는 헌성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정헌공은 원래 안동권씨로 국재공(菊齋公) 권보(權溥)의 넷째 아들로 본명은 권재(權載)이다. 그러나 고려 제26대 임금 충선왕이 양자로 삼아 왕후(王煦, 1296~1349)라는 성명을 하사해 왕씨가 되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손자 대에 이르러 안동권씨로 복성하였다.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제17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성황리 거행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안동권씨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에서는 10월 3일 10시 문중 입장퍼레이드에 100여 명의 족친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충원 대의원 의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대순 참의공 종중 상무이사, 권정순 참의공 종중 전 총무, 권대술(복야공파 30世), 권옥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비서 등이 참석하였다. 서울에서는 권순길 대종회 이사가 참석하였고, 권오섭 진천종친회 회장 등 7명이 함께 하였다.

이번 대회는 100여 문중이 문중입장퍼레이드에 참여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관복과 도포를 차려입은 안동권문의 후손들은 시조 묘소, 권율 장군, 안동권씨 성씨조형물 대형 피켓을 앞세우고 명문가의 후예답게 입장했다. 대전종친회에서는 매년 10월이면 권용기 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숭조돈목의 정신으로 일심단결하여 효문화뿌리축제에서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회원들은 입장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